

“BDA, 美 은행 중계 → 러 은행 송금 추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북핵 외교 라인에 오랜만에 활기가 감돌고 있다.

미국 은행의 중계를 거쳐 BDA자금을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이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부도 은행이 개입하는 방안이 시도됐다가 막판에 유야무야되는 등 중간이 문제를 둘러싼 곡절이 많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번 방안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방안의 경우 국제금융 체계안에서 미국, 북한간 연결고리를 담당하기 위해 러시아가 적극 나섰다. 이는 성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

‘북핵 송금’ 돌파구... 2·13 합의 이행 임박설 부상

정부 “합의 이행 착수까지 신중” 돌발 변수 경계

구, BDA와 자국은행간 거래를 금지시킨 3월 조치(이른 바 final rule)에 대해 사실상의 예외사례를 허용하는 ‘결단’을 내린 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BDA→미국 은행→러시아 은행’의 구도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송금을 희망해 온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미·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현실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의 교집합을 절묘하게 찾아낸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1일부터 이뤄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BDA 문제를 둘러싼 이 같은 긍정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박3일 정도로 예정된 천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BDA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바탕으로 BDA 극복 이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천 본부장은 힐 차관보와의 회동에서 우선 BDA 문제의 진전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돌발 변수가 발생 할 가능성을 차단해가며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13합의 이후 BDA 때문에 100여일을 허송한 만큼 2·13 합의의 초기조치와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까지의 진행 과정을 신속·정확하게 밟아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북한이 당초 국제사회에 한 공언대로 BDA 해결 즉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초청 및 핵시설 가동중단 절차를 시작할지에 대해 100%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난해한 ‘신호’를 보냈던 북한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소수이긴 하지만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가한 조지 W. 부시(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새로운 MD 논쟁...미·러 ‘갈등-협력’ 기로 기후 변화 협의...‘포스트 교토 의정서’ 성큼

■G8 정상회담 이후 세계는

독일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 회담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화의 주도 세력인 G8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 간 연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흥 경제국가에 대한 대응책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합의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망(MD)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은 여전하며, 에너지 자원 및 군사상 의존적인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MD논쟁-美·러, 갈등-협력 기로에 =독일 하일리겐담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이자 성과 중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간의 미사일 방어망(MD) 논쟁이었다.

전세계적인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럽

을 망라한 MD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결사 반대하던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에 공동 레이더기지를 설치하자고 기습 제안, 극한 대결로 치달던 MD논쟁의 물줄기를 일단 바꿨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을 미국측이 거부할 경우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며 이제까지보다 더욱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교토 의정서’ 성큼 =선진 8개국(G8)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8일 공동성명에서 “오는 2050년까지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유럽 연합(EU)과 일본, 캐나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미흡”

힐러리, 한미 FTA 비준 반대

2008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의원은 이날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AFL-CIO 주최로 미 자동차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미 FTA가 비준되면 무엇보다도 미국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비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힐러리 의원은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협정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본다”며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저해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높이며,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러리 의원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는 6천대에 그쳤으므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중 80%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힐러리 의원은 특히 한미 FTA합의안이 한국내 미국차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비관세 장벽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으며 “그런 장벽들이 없애지지 않는 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내수 시장의 경쟁만 가중되고 한국 시장 접근은 늘지 않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힐러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노조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AFL-CIO 주최로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주장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한 여자교도소에서 8일(현지시간) 열린 패션쇼에서 한 여죄수가 다른 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여죄수들의 패션쇼

‘녹색’ 피를 가진 인간

캐나다 40대...의학계 관심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의 피가 ‘짙은 녹색’(dark green)을 보인 사례가 의학 전문지 ‘랜셋’(The Lancet)에 최근 보고돼 의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세인트 폴 병원의 의사들은 2005년 10월 앓은 자제로 잠든 후 두 다리에 ‘이코노미시증후군’이 발생한 42세 남성을 수술하기 위해 동맥에 혈압

측정 기구를 삽입하다 선홍색 피가 아닌 암녹색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캐나다통신이 9일 보도했다.

수술팀은 혈중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으나 그 경우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다음날 실험실은 녹색피가 어떤 약물의 복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日 입항 탈북자 가족
이르면 이번주 한국행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목선을 타고 후카우라항에 도착한 탈북자 가족 4명의 신병을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이내에 한국측에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카나카 히데노리 전 도쿄 입국관리국장이 말했다.

현재 탈북자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카나카씨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마당에 일본 정부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4명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전망했다.

‘못말리는 부시’ 이번엔 교황에

다리 꼬고 “Yes, Sir” 호칭 구설수

온갖 실언과 ‘격의없는’ 행동으로 유명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일련하는 도중 잇따른 의전상의 결례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궁내 교황의 개인 서재로 교황을 예방, 환담하는 자리에서 베네딕토 16세에게 ‘성하(His Holiness)’라는 존칭 대신 주로 손윗사람이나 의회에서 의장에게 쓰는 경칭인

‘Sir’ 표현을 사용한 것. 폴 기자단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인권단체로 가톨릭 평신도 조직인 ‘상트 에지디오 공동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가’라는 교황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Yes, sir)”라고 대답한 데 이어 교황 앞에서 ‘텍사스식’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돌출된 언행으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SASA FOR CHILD & JUNIOR ROOM

SASA&툼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성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드립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술품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했기에, 웅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 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